

클릭 안 해도... 말만 하면 시가 알아서 '척척'

'내 손안의 AI 비서' 갤럭시 S26 미서 공개

촬영된 영수증·서류·메모 주름 없애 깔끔하게 '대령'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 스스로 응대... 피싱 범죄 차단 내달 5일까지 사전판매... 코발트 바이올렛 등 4종 출시

삼성전자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갤럭시 언팩 2026 행사를 개최하고 갤럭시 S26 시리즈를 공개했다. 갤럭시 S26 시리즈는 삼성전자의 가장 진보된 모바일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갤럭시 S26 울트라 △갤럭시 S26+ △갤럭시 S26 총 3개의 모델로 구성됐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 더욱 직관적인 인공지능(AI)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에이전트를 탑재했다. 대화형 디바이스 에이전트 '빅스비'가 업그레이드돼 자연어 기반 대화를 통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스마트폰 설정 등을 쉽고 빠르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설정 메뉴에서 제미니와 퍼플렉시티 등 원하는 에이전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이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 명령으로 AI 에이전트를 호출할 수 있다. 갤럭시 S26 시리즈는 촬영된 영수증, 서류, 메모 등에 주름이나 손가락 등과 같은 요소를 깔끔하게 제거해 완성도 높은 스캔 파일로 제공하는 AI 기반 스캔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에 AI 기반 통화스크리닝 기능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AI가 사용자 대신 받아 상대방이 AI에게 말한 발신자 정보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제공한다. 또한 갤럭시 S26 시리즈는 삼성전자의 화질 개선 솔루션인 'mDNIe'가 탑재돼 디스

플레이를 통해 색감을 한층 섬세하고 현실감 있게 구현한다. 여기에 2억 화소 광각과 5000만 화소 광학 줌 수준의 10배 줌 망원 카메라에 전작비 더욱 넓어진 조리개를 탑재해 역대 갤럭시 중 최고의 경험을 선사한다. 갤럭시 기기 최초로 전문가용 영상 제작을 위한 'APV' 코덱을 지원하고 저조도 환경에서 깨끗한 결과를 제공하는 '나이토그래피' 기능과 동영상 촬영시 흔들림을 보정해주는 '슈퍼스테디' 기능도 제공한다. 또한 업그레이드된 '포토 어시스트' 기능과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기능 등을 통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진 편집을 할 수 있다. 안전한 사용 경험을 위해 사생활 보호 기술과 보안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특히 스마트폰 최초로 측면에서 보이는 화면을 제한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사생활 보



호 기능이 강화됐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시리즈를 3월 11일부터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에 순차적으

로 출시한다. 국내 사전 판매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갤럭시 S26 시리즈는 △코발트 바이올렛 △하이트 △블랙 △스카이 블루 등 4종의 색상으로 출시되며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만 구매 가능한 전용 색상인 '핑크 골드'와 '실버 슈도우'도 함께 출시할 계획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겸 DX 부문 사장은 "삼성전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AI의 유용함을 느낄 수 있도록 모바일 경험을 발전시키고 AI 경험의 대중화를 선도해 왔다"며 "갤럭시 S26 시리즈는 강력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GPTW 경영 혁신 컨퍼런스'에서 기아가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을 수상했다. 기아

기아,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선정

기아가 GPTW 경영 혁신 컨퍼런스에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GPTW(Great Place To Work)는 매년 170개국 3만여 개 기업의 조직문화를 진단, 평가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평가기관이다. 인증은 총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인 일하기 좋은 기업은 평가 대상 범인이 구성원 설문조사에서 60% 이상(대한민국 기준, 국가별 상이)의 긍정 응답률을 달성하면 부여된다. 2단계인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은 구성원 설문조사와 조직문화 공적서 평가 결과를 종합해 각 국가 내 상위 100개 기업이 선정된다. 3단계인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은 본사를 포함한 5개 국가에서 2단계 인증을 취득한 글로벌 기업 중 상위 25개 기업에게 부여된다.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기아는 79%의 긍정 응답률을 기록해 1단계 인증을 획득했으며 조직문화 공적서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 설문조사는 국내 임직원 중 전 직군에 걸쳐 5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총 60문항을 통해 △윤리경영 △회사에 대한 자부심 △리더에 대한 신뢰도 △몰입도 △참여 문화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훈 기자 yhle@skyedaily.com

유통 대기업 오너 배당 '두둑'... 신동빈 297억·정용진 199억

롯데·신세계·현대백 총수 최대 300억 수령 증시·주주환원 강화 흐름에 배당금 늘어나

증시 활성화와 주주환원 강화 기조가 확산되면서 국내 유통 대기업 오너들의 배당 수입도 일제히 증가하고 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은 적게는 150억 원, 많게는 300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할 전망이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월드, 롯데칠성음료 등 4개 상장 계열사에서 총 297억4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전년(284억8000만 원)보다 약 12억 원 늘어난 규모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롯데지주다. 롯데지주가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을 1200원에서 1250원으로 상향하면서 신회장의 지주사 배당 수령액은 약 172억1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롯데쇼핑(약 115억7000만 원), 롯데월드(약 6억 원),

롯데칠성음료(약 3억6000만 원) 배당을 더해 3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다. 유통 업황 둔화와 대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주 가치 제고 기조를 유지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배당 수익도 큰 폭으로 늘었다. 정 회장은 이마트 지분 28.85%를 기준으로 약 199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이마트가 주주환원 강화를 위해 최저 배당금을 25% 상향(주당 2000원→2500원)하면서 배당 규모가 확대됐다. 보유 주식 수 변동 없이 배당 정책 변화가 직접적인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신세계와 신세계 인터내셔널 배당을 합쳐 약 167억8000만 원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전년(103억8000



만 원) 대비 60% 이상 늘어난 수치다. 모친인 이명희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지분율이 10%p 이상 상승한 데다, 신세계가 주당 배당금을 4500원에서 5200원으로 대폭 인상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현대백화점과 현대지에프홀딩스 배당을 합산해 약 194억4000만 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주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가

연간 배당금을 주당 210원에서 300원으로 확대하면서, 약 40%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한 정 회장의 배당 수익 증가를 견인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증시 활성화 기조와 맞물려 상장사 전반에 주주환원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유통 대기업들도 배당 성향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는 분위

기"라고 말했다. 이어 "실적 변동성과 경영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최종 배당 규모는 이사회 의결과 정기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부자의 길을 함께 갑니다 대한민국 첫 '부의 지도' 서비스

부자의 성(城) 서초 강남 용산 SKY!!! 스카이데일리가 새로운 부의 길을 놓습니다 누구나 그 길을 갑니다 존경 받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